

구제(舊制) 고등학교 조선인 학생의 문예활동

永島廣紀(佐賀大)

들어가며

보고자는 최근 전시기(戰時期)의 구제(舊制) 관립고등교육기관(제국대학·단과대학·고등학교[제대예과]·고등상업학교·고등공업학교·고등농림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했던 조선반도 출신자의 수적(數的) 동향에 관한 전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처음 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규슈산업대학의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豊) 교수가 ‘김사랑’의 구제고등학교 시절과 관련하여 사가(佐賀)대학에서 수행한 학적부 조사¹⁾에 동행했던 데에서 유래한다.

주지하는 것처럼 김사랑(김시창)은 사가고등학교 문과 을류(乙類)에 입학하여,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독일문학과에 진학(졸업 후에 대학원에도 재적)했던 조선인 작가이다. 옆의 사진은 사가대학 학무부 교무과가 보관하는 구제사가고등학교의 학적부 안에 남아 있는, 입학 직후 시기로 추정되는 김사랑의 사진이다. (일반에게는 미공개의 자료)

그런데 여기서 소박한 의문이 떠올랐는데, “원래 구제사가고등학교에는 어느 정도의 조선인 학생이 재적하고 있었을까” 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관계자료를 대조해 보았더니, 1920년 봄의 개교로부터 1950년 3월의 폐지까지의 시기에 상당수의 입학자/졸업자(중퇴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다만,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인가 적은 것인가는 불분명했다.

따라서 우선은 인근 현의 구제 고교(후쿠오카福岡고, 5고, 7고 조우시칸造士館)로부터 차례로 조사를 개시하여 그것을 일본 전국(타이페이台北·뤼순旅順을 포함하는)의 구제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확대시켰다. 현재, 구제고교에 관해서는 일단의 조사를 종료하면서, 다른 구제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속행 중이다. 이에 본 보고는 우선 제국대학의 사실상의 예과였던 구제고교를 중심으로 삼은 고찰인 것을 미리 밝혀 두고 싶다.

(1) 수집자료에 대하여

‘관립’의 구제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해당 학교군(群)이 조선인 유학생들이 대거 몰려 든 재경(在京)의 학교일뿐만 아니라, 북으로는 홋카이도로부터 남으로는 가고시마(鹿兒島)까지, 바야흐로 지방색이 전면화하는 제학교의 구석구석까지 남김없이 재적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각지의 제국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이 확인가능하기 때문이다. 제국대학 졸업 후에는 조선으로 돌아가 관공리가 되는 자가 많았지만, 전술한 김사량처럼 ‘제대졸업의 문사’가 되는 사람도 있었다. 숫자는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일본통치기 그리고 남북 분단 후의 조선 반도에 있어서 문학자들과 ‘구제고교’, ‘제국대학’ 그리고 학창시대의 일본어에 의한 습작 문제는 지금까지 개별의 작가론 속에서 취급되어진 적은 있을지라도, ‘작가예비군’, ‘아마츄어 문예’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경성제대·동(同) 예과의 케이스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이번 집계에서는 제외하지만, 금후에라도 적당하게 비교 검토하고 싶다. 특히, 유진오와 이효석 등의 습작이 게재되었던 경성제국대학예과의 문예지 淸涼의 자료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지’ 고교의 문예지와와의 비교의 시점이 필요불가결하다.

보고자가 수집한 기본자료는 주로 각 구제고교의 문예부와 ‘생도료(生徒寮)’가 발행하고 있던 학우회잡지, 寮誌의 종류이다. 보고자의 조사에서는 당초, 어디까지나 ‘보족적(補足的)’, ‘참고적’인 자료로서 수집해 왔던 것이지만, 수집 결과 조선인 학생에 의해 발표되었던 창작물이 그 나름 적지 않은 숫자에 달하는 것이 판명되고, 또한 내 견해로는 문예작품으로서의 수준도 결코 낮지 않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보고에서는 우선은 전체적인 동향을 정리하는 것과 함께, 다음 년도에는 개별작품의 내용에 대해서도 고찰을 더할 예정이다.

(2) 구제 ‘사가고등학교’

사가고교는 야마가타(山形)와 마찬가지로 1920년에 설립되었으며, ‘제 15 고등학교’로도 명명된 지명(地名) 스쿨의 하나이다. 사가교 출신자의 특징 중 하나는 관리지방자가 많았던 것이며, 많은 행정관·사법관을 배출하고 있다.

조선인 입학자의 동향으로서 괄목할 점은 ‘평양고등보통학교/평양제 2 중학교’ 출신자가 많은 것이다. 1944년 9월까지의 졸업자(중퇴자 포함) 65명 중, 그 수는 20명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서 이북 5도의 학교, 내지는 이북 5도 출신인 것이 확인되는 경성 소재 학교 출신자의 수는 39명을 헤아리며, 전체의 6할을 점한다. 그리고 39명 중의 14명이 교토제국대학에 진학하고, 그 중의 9명이 법학부에 입학하고 있다.

왜, 이러한 정도까지 ‘서북인’이 사가에 밀려들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할 명확한 자료를 찾아내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조선반도에 가까운 규슈지방인 것이 그 이유의 하나이겠지만, 인근의 후쿠오카(福岡)와 구마모토(熊本)에서는 이북 5도로부터의 진학자가 그 정도로 많지 않았다. 오히려 구마모토의 제 5 고등학교에서는 대구고보(경북중학교) 출신자가 많으며, 지극히 대칭적인 구도가 되고 있다.

그래도 법과 진학자는 아니지만, 서울대에서 초대 공과대학장으로 근무했던 김동일의 회상록이 남아 있어서, 그 이유의 일단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김동일은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1908년에 태어났다. 집은 자작농, 과수원 경영을 했으며, 비교적 부유층에 속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 후, 휘순(旅順)공과대학 예과를 시험봤지만 불합격되었고, 자택에서 수험공부를 하여 1926년 4월 사가고등학교 이과 갑류(甲類)에 입학하였다. 사가고교 졸업시(제 7 회:1929년 3월)에 동경제대 의학부를 시험봤지만 불합격되어, 1년 후에 공학부 응용화학과에 진학하고 있다. 동경제대 졸업 후에는 무급조수를 거쳐 종연방직(鐘淵紡績)에 입사하여, 평양인견(人絹)공장에서 근무했다.

사가고등학교에서는 3년 동안 줄곧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인종 차별 같은 것은 느끼지 못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다. 사가고등학교에서는 1학기 첫 학기만 성(姓)이 일본의 어순이 ‘아가사다(アカサタ)-’ 글자 중 가장 빠른 학생이 반장을 하고 다음 학기부터는 투표로 정했는데 내가 줄곧 당선되어 졸업 때까지 반장과 축구부 주장을 하여 나름대로 학생생활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었다.

이 회상을 읽을 때에는 몇 개의 포인트가 있다. 우선 ‘기숙사/료’이다. 많은 구제고교에서는 신입생의 생도료에의 입료(入寮)를 의무로 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스툼’을 비롯한 독특한 구제고교 문화의 주무대였다. 또한 반(反)권력적인 기풍과 함께 리버럴한 교풍을 자랑하며, 한편으로 그것이 ‘공산주의’, ‘독립운동’의 온상으로서 경찰, 헌병대는 항상 감시 하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구제고교의 문화로서 중요한 것이 활발했던 ‘부(部)활동’이다. 운동부는 말할 것까지도 없고, 이과와 운동부 소속의 생도도 학내의 문예부 잡지에 자주 기고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김동일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축구부에서 활약하는 조선인 선수는 아주 많았다. 여하튼, 구제고교에 있어서는 표면적인 방침 이상으로 평등, 능력주의가 관철되었으며, 경성(京城)에 대한 대항심과 기피 감정으로부터도 이북 5도 출신자가 특정의 고등학교를 목표로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 현단계에 있어서 필자의 가설이다.

다시 김시명·김시창 형제의 케이스에서 생각해 보고 싶다. 김시명은 위에서 말한 김동일과 동급생이다. 같은 평양고보로부터 사가고교에 입학하여, 졸업 후에는 교토제대 법학부에 진학했다. 문관고등시험에서는 행정과와 사법과의 양방향에서 합격해서 조선총독부에 입청(入廳)하여, 종전 때의 관직은 본청 과장급의 전매국 서기관(전주 전매국장)이었다. 김동일의 회상에 의하면, 1945년 이후는 월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동생인 김시창은 필명인 ‘김사량’으로 알려진 소설가이다. 동맹휴교사건으로 평양고보를

중퇴하지만 구제고등학교는 ‘4 년수료’의 자격으로 수험이 가능했기 때문에 형의 뒤를 따라서 사가고교에 입학하고 졸업 후에는 도쿄제대 문학부(독문과)에 진학했다. 도쿄제대 재학시부터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에 들어가, 「빛속에」는 소화 15 년도(1940) 상반기의 아쿠타가와상 차점(次點)이 되며, 문예춘추 지에서는 이례적인 ‘낙선경위’가 게재되었다. 1945년 여름에 연안의 중공군 점령지로 탈출해서, 이후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부 강사 등을 거쳐 한국전쟁에 종군작가로서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 초기의 ‘쾌진격’에 의해 반도 남부까지 남하하고, 바다가 보인다 등의 르포르타주를 남기지만, 미군의 인천상륙 후에 퇴각 중 소식이 끊기게 된다.

이처럼, 사가고등학교에서는 평양고등보통학교 출신자, 더구나 형제가 입학한 예를 그 외에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필시 그러한 배출학교 측의 수험지도나 연고를 가지고 입학할 희망하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 예상된다.

(3) 이가형(李佳炯)과 분노의 강 (1995년 3월)

여기서 ‘일본어 세대’의 한국인으로서 가장 최말기(最末期)에 제국대학에 진학했던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가형(1921.03-2001.10)을 거론해 보고 싶다. 그의 일본어 저작인

분노의 강 (1995년 3월 발간)에 의하면 이가형(岩本佳夫)은 1921년 3월 출생이며, 전라남도 목포부 출신이라고 말한다. 광주 서중학교(전 광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 후에 구마모토(熊本)의 제 5 고등학교(문과 을류)에 진학하고, 동교를 1942년 9월에 졸업 후, 곧장 동년 10월에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불문과에 진학하였다. 요컨대 고등학교는 단축조치에 따라 2년 반 재학하고, 대학입학 후 1년이 되어 학도 동원된 세대가 되었다. 따라서 그들 입학 세대는 졸업기를 맞이할 수 없었다.

입영 후에는 5개월간의 신병훈련을 거쳐 제 1 보충역의 육군이등병으로서 ‘용산야포병 제 26 연대’에 배치되었다. 동(同) 연대에서는 전라남도 출신의 지원병이 21명 소속하고 있었으며, 환자 2명과 간부후보생 3명을 제외하고 16명이 버마에 출정했다고 말한다. 그가

편입되었던 제 49사단산포(山砲) 제49연대 제2대대의 출발일은 1944년 6월 18일이었다. 이가형의 저작은 인명과 부대명, 혹은 일시에 관한 기술이 극히 정확하며, 아마도 군대수첩에 상세한 일기를 썼던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세한 것은 불명이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이가형은 돌아온 후인 1946년부터 목포고의 교사를 시작으로, 목포初級商大 부교수(1951년), 전남대 부교수(1952년), 중앙대 부교수(1960년)를 거쳐 국민대 교수를 역임하고, 또한 한국추리작가협회의 회장도 맡았다.

그런데, 분노의 강은 어디까지나 학도병(임시채용육군특별지원병)으로서 태평양 전쟁에 종군했던 자신의 체험을 썼던 회상록·전기(戰記)이지만, 읽어나가는 곳곳에 문학사 연구의 자료로서도 주목되는 기술이 나온다.

우선 시인·평론가이며 ‘씨클마을’ 운동으로 알려진 타니가와 간(谷川雁, 1924-1995)과의 교우에 대해서,

이웃의 타니가와(谷川)는 이른바 ‘불령선인’이었던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었다. 빼어난 수재인 그는 약관의 나이에 시인이며 평론가였다. 입학 초기, 그는 역사소품인 에세이를 발표했던 것인데, 마침 龍南 지의 편집부원이었던 내가 선고(選考)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동서 116 쪽)

라고 서술하고 있다. 제 5 고등학교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龍南 이라는 문예지를 발행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나는 곧바로 언어의 벽에 부딪혀 버렸다. 나는 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 조선어가 입에 붙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중학(우리 조선인의 중학은 고등보통학교, 줄여서 고보라고 불렀다) 시절 일본의 문예서를 탐독하고, 일본어 작문이

뛰어나다고 칭찬받았다. 시문 창작 흉내도 내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상할 정도로 조선 문학서와는 거리가 멀었다. 거의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改行) 그런데 내가 온 좋게 일본의 구제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을 때, 나는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것의 프라이드를 의식하게 되었다. 나는 조선어 및 조선문학을 맹렬하게 공부하게 되었다. 우선 나는 손에 닿는 대로 조선어 책을 사 모으고, 닥치는대로 읽었던 것이다. 그 때 5 고의 고지(高誌)인 龍南 에서 조선어 작가 이효석의 「豚」이라는 단편을 일본어로 번역의뢰를 받아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에는 龍南 의 편집위원도 되었고, 클래스의 문예구락부의 일원이 되었다. 나는 어디까지나 조선의 작가가 될 각오를 정했다. 그런데 조선어로 습작해 보려고 해도 좀체로 잘 되지 않고 막혀버리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이가형에게 있어서 ‘일본어/조선어’ 로의 습작의 문제, 그의 ‘일본어 능력’, ‘조선어 창작’ 등에 대해서 솔직한 토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중언어’ 의 단계를 넘어서, 드디어 일본어로 창작 하는 쪽이 편해진 세대가 된 것일까? 또한, 인용문 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가형은 분명히 龍南 제 246 호(1940 년 3 월)에 「豚」(이효석작) 번역을 게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결론을 대신하여

보고자는 아직까지 결론을 서술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하에 도중의 결과로서 현단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본고를 맺고 싶다.

- 작품은 대체로 입학자수가 많은 학교에서 남는 경향(야마구치山口고, 제 3 고, 사가고)
 - ※ 타이완 출신자의 집필은 극히 적음(창작은 거의 없다고 말해도 좋음)
- 문과 이과의 구별 : 압도적으로 문과의 생도(갑류.을류에 의미있는 차이는 없는 듯)
- 출신지.출신교 : 이북 5 도 출신자가 많음(별첨 자료를 보면, 이것은 전체적인 경향)

- 연령층 : 약간 높은 듯(이미 성인이 된 자의 입학도 많음)
- 진학선 : 도쿄제국대학이 가장 많음(반드시 문학부 지망은 아님)
- 복은 아오모리^{青森}, 남은 구마모토^{熊本}까지, 거의 빠짐없이 분포(다이쇼 중기에 대폭 증설된 ‘지명스쿨’에 역시 많음)
- 시기적인 특징 : 확인할 수 있었던 문장 중, 논설문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김두용(3 고:1925년), 창작으로서는 한규학(成蹊高 : 1926년, 그렇지만 연극 플롯트)
 - 20-30년대 초에는 ‘식민지의 현상’, ‘빈곤’, ‘조선인노동자’ 등 프로문학조(調)의 작품이 뚜렷함 : 사상문제.치안유지법과의 관련 때문인가, 퇴학자가 많음.
- 30년대 이후 : 자연주의.낭만주의.도덕론과 같은 구제고교생적인 작품이 역시 증가해 감
 - 질.양 함께 충실 : 마츠모토^{松本}고의 송범의는 <寮歌>의 작사도 직접 하는 등 다재다능함.
- ‘반도문단’ 소개 : 번역작품수는 겨우 2편(4 고의 이한기²⁾와 5 고 이가형), 이광수와 이효석이 번역되었다)
- 작가의 세대론적인 계보정리가 가능한가?
 - (초기) 이광수와 염상섭 등 ...중등교육 단계로부터의 일본유학세대
 - (중기) 김문집과 김사량 등 구제고교를 목표로 한 자들의 세대(경성제대 예과출신의 유진오 등도 우선은 이 범주일듯)
 - (말기) 이가형 등 학도동원세대(1930년대 말에 중학을 졸업, 고교는 전시사정으로 단축)

1) 白川豊, 「佐賀高等学校時代の金史良」(『朝鮮學報』147, 1992년 4월/이후『植民地期朝鮮の作家と日本』大學教育出版、1995년 7월에 収録)。

2) 이한기(1917.09-1995.02) 서울대 법대 교수. 1987년에는 국무총리대리를 지냄.